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35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2018년 무술년 들어 첫번째 백고좌법회인 제35회 백고좌법회를 3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1995년 처음 시작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1~3회씩 개최하고 있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자들에게 익숙한 법회입니다. 이번 제 35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 높은 스님들을 두루 초청하여 신행 생활에 꼭 필요한 팔만사천, 금구성언의 법문을 듣고 친견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 합장



• 89일차

6월 1일
특별법문
지운스님
성주 자비선사 회주



• 93일차

6월 5일
특별법문
계성스님
강화 법왕사



• 95일차

6월 7일
특별법문
여현비구니스님
서울동국대 교수



• 100일차

6월 12일
보살계 수계법회
혜능스님
울산 람림학당 주지

◆ 일시 : 2018년 3월 5일 ~ 6월 12일(100일간)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법회 : 매일 오전 9시 기도, 법문 11시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88일차	5월 31일 困	혜문스님	파동 상락선원장	95일차	6월 7일 困	여현비구니스님	서울동국대 교수
89일차	6월 1일 罽	지운스님	성주 자비선사 회주	96일차	6월 8일 罽	금해스님	울주군 황룡사 주지
90일차	6월 2일 田	현정비구니스님	칠곡 대원사 주지	97일차	6월 9일 田	마문스님	진주 응암사 회주
91일차	6월 3일 回	정엄스님	군포 정각사 주지	98일차	6월 10일 回	도산스님	범어사 금강암 총무
92일차	6월 4일 圃	실상스님	법왕사 주지	99일차	6월 11일 圃	실상스님	법왕사 주지
93일차	6월 5일 因	계성스님	강화 법왕사	100일차	6월 12일 因	혜능스님	울산 람림학당 주지
94일차	6월 6일 困	혜월스님	예산 수덕사 상주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net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아름답게

2018. 6 | Vol. 282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제35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봉행



법왕사에서는 제35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 입재한 49재는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올리며 6월 11일 회향합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도 봉행합니다.

법회기간 동안 조상영가 천도재를 올림으로써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49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기도

오 재 5월 28일(음. 4월 14일)
육 재 6월 4일(음. 4월 21일)
막 재 6월 11일(음. 4월 28일)

※영가 접수 받습니다.(매주 월요일 재일)

※영가 1위당 5000원

준비물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겂옷, 신발(짚신) | 사중에서 준비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공양미 | 3되3홑 또는 15,000원
수자령 | 분유, 배냇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문의

법왕사 766-3747, 9088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중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Vol. 282호

- 04 깨침의 향기**
자식은 부모 그림자 보고 자란다(2) · 원공당 정무 대중사
- 06 비슬산방**
안거철 맞아 새롭게 다지는 불심 · 실상 주지스님
- 08 법왕논단**
사실 왜곡은 민심만 현혹시킨다 · 본원스님
- 12 부처님이야기 – 초기원형불교 자료에 근거(28)**
꼬나가마나 부처님 이야기 · 영일스님
- 16 경전의 세계 – 대승경전**
금강경, “중심은 공이다”
- 20 특집 : 화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투신 참뜻은?
- 22 해오름 요양원 – 함께 알면 좋아요**
노인의 건강, 그리고 운동
- 26 법왕사소식**
- 29 법왕사게시판**
- 34 해오름소식**
- 35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 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s.or.kr | 발행일_불기 2562(서기 2018)년 6월 01일 발행 | 통권 282호 | 종무소 T.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묘도, 영일, 상철, 자행, 자유, 강선옥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란합니다.

자식은 부모 그림자 보고 자란다(2)

원공당 정무 대종사



예나 지금이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교육은 가장 큰 과제입니다. 가정은 가장 최초, 최고의 학교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처럼 간혹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효자 가문에서 효자 나고 명문가에서 위대한 인물이 배출되었습니다.

예부터 엄부자모(嚴父慈母)라 했듯이, 어머니는 사랑과 예의·배려를, 아버지는 극기와 용기·인내를 가르쳐야 합니다. 따뜻한 사랑과 자비심이 충만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게 따뜻하고 자애로운 품성이 형성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격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야 인격자,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한 사람이 되고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야, 사회 부적응아가 되기 쉽습니다.

즐거운 곳은 내 고향 부모님 계신 곳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부모님 생각을 하면 힘이 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그런 부모는 힘의 원천, 마음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서는 삼계도사(三界導師) 사생자부(四生慈父)이십니다. 또한 부처

님께서도 라후라(장애물이라는 뜻)라는 외동아들을 두었습니다. 부처님의 부인이셨던 야수다라 태자비께서 라후라에게 부처님께 ‘상속을 해달라’고 하라고 시켰습니다. 부처님께선 라후라에게 법을 상속해주시며 출가를 권유했고, 또 라후라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곤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출가한 라후라의 행동이 어떠한이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왕자로 태어난 데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존경하는 부처님의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게으름을 피우고 거짓말도 하면서 온갖 개구쟁이 짓을 다하는 라후라 때문에 대중스님들의 고통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혼을 낼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부처님께서 어느 날 라후라를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존경하는 스승에게 발을 씻겨드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라후라도 물을 떠다가 부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발 씻은 물을 가리키며, “이 물을 먹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못 먹겠다”는 라후라에게 부처님은 물을 갖다버리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록 내 제자이지만, 삼독 번뇌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더러운 물과 같다.”

다시 라후라에게 “그 대야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음식을 담을 수 없다”고 하자, 대야

를 발로 차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비록 집을 나와 사문이 되었지만 생각은 거칠며 정진은 게을리 하였으니, 이 대야에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저 대야가 깨질까 걱정하지 않았냐?”고 재차 물었고, 라후라는 “발 씻는 것인데다 값이 짠 거라서 걱정하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는 지금 이 대야와 같다. 함부로 행동하고 거친 말과 욕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너를 아끼고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 그 버릇을 고치지 아니하면 네가 커도 큰 스님이 되지 못함은 물론 아귀나 축생으로 태어나는 과보(果報)를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라후라는 열심히 정진하여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증득하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밀행제일(密行第一)로 칭송받았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대화를 통해 하나 하나 교감하면서 라후라를 일깨운 것은 자녀교육에 크나큰 귀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부모 노릇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악한 일 말게 하라.

둘째, 착한 일 하게 하라.

셋째, 학문과 기술을 가르쳐라.

넷째, 때가 되면 결혼시켜라.

다섯째, 재물의 상속 말고 법의 상속자가 되게 하라.

원공당 정무대종사 열반 3주기 추모 범어집 『인생졸업장』에서

안거철 맞아 새롭게 다지는 불심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승가에서는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석달 동안을 하안거(夏安居)라 하여 산문 밖 출입을 삼가고 오직 자신의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행전통은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는 이때를 전후하여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내려 일정한 곳에 정착하여 안거를 지내게 된 것에서 유래된 전통입니다. 불교가 서장(西藏)을 거쳐 중국과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는 지리적 환경이 바뀌어 기후적으로 인도의 우기 대신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철에 각 한차례씩 안거에 들어왔습니다. 이 결제 동안에는 산문 밖 출입을 자제함은 물론 몸과 마음을 단속하여 초하루마다 포살을 하고 한층 더 절제된 수행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하안거임에도 부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여 부처님 계신 처소로 되돌아와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제자의 문안을 받으며 “결제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고 정진할 것이지 왜 나를 찾아왔느냐?”고 물으시고는 “계(戒)를 스승과 같이 받들어 이를 지키면 멀리 있어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계를 지키지 않으면 나와 같이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꾸짖으며 “이위계사(以爲戒師)의 정신으로 계를 섬기어 수행정진하면 나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계법과 수행은 실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러기에 설사 부처님 경전을 앵무새 마냥 외운다 해도 그 부처님 뜻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무슨 이익과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교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실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참선 교리가 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행증과를 얻으려면 결국 실천을 통해야 하므로 이론에만 치우친다면 실천 불교의 진수를 알기는커녕 평생 가도 부처님 일은 꿈에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즉 불교를 많이 안다고 해서 옳은 불교가 될 수 없기에 한 가지를 알아도 실천에 옮겨 전념해야만 부처님 가르침의 생명력을 이룰 수 있고 육바라밀 보살도의 공덕이 생겨 청정한 인격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불자라면 우리 모두 일체 중생이 무명에 싸여 불성(佛性)을 깨닫지 못하고 온갖 고통 속에 육도윤회하는 존재라는 설법을 듣고, 그 법문을 이해하여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자신들이 몸소 염불, 간경, 주력 등으로 이 불법의 진면목을 체득하고 이를 실제로 활용하여야만 사실상 완전한 나의

수행이자 내 생활 속의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보다는 실제로 육바라밀행을 닦아 증득하는 것이 낫고 증득함보다는 활용하는 편이 나은 것이니 부처님께서 여설수행(如說修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뼈를 깎는 고행으로 일관했던 부처님처럼 우리도 불교를 실천의 종교로 바꾸고 나서 무슨 일이든 원력을 세워 굳은 결심으로 처음 발심했던 뜻을 잃지 않고 실천수행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으니 모름지기 부처님 말씀을 잘 믿고 가르침대로 실천하면 만사가 형통하여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부터 안거(安居)를 하며 계를 지키는 모습은 가장 아름다워서 전통적 불교 수행의 참모습으로 부처님 정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스님들과 같이 우리 재가 불자들도 가까이 여기에 동참하여 초발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활을 일구면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여름 안거 동안 우리는 부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참선, 염불, 혹은 간경, 혹은 주력과 기도로 부처님 말씀 따라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부처님 뜻에 더욱 부합하여 자비광명이 발해질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생에 안 되면 내생에, 내생에 안 되면 다음 내생에는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참선, 염불, 간경, 주력을 따로 보지 말고 올곧게 마음을 닦아 나아갑시다.

사실 왜곡은 민심만 현혹시킨다

본원스님 / 명상수행원



책과 학문은 그저 견문지식일 뿐, 밖을 향해서 쫓는 거기에 실다움이라고 없는, 객관의 꼬달림을 거두어, 내 안에 깃든 참마음 자리를 관찰(자기 응시)하는 습성을 길들여야만 비로소 허기진 욕망이 갖는 과도한 탐욕과, 부와 귀함 또한 잠시 한 때 머무는 것일 뿐, 별거 아니라는 바른 소견으로써, 허상의 그림자에 빠질 만큼 집착하지 않게 된다.

조선을 창업한 이성계는 왕실이 권력다툼을 하는 게 보기 싫어 함흥으로 떠난 후,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태종)이 부왕을 모셔오라고 보낸 신하를 모두 죽인다(함흥차사).

왕세자로 책봉된 부왕의 후처 신씨 소생인 어린 이복동생(방석)을 비롯해 형제들과 부왕이 ‘나의 장자방’이라며 신임했던 좌장격인 정도전을 죽인 이방원의 참모는 하륜으로, 두 사람은 동문수학한 성리학자로서 여말(麗末), 혼탁한 불교를 두고 제법 논리적 이유를 들어가며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억불정책의 기반을 다진 인물이다.

출세를 위해 섬기는 주인이 달라서인지

목적에 이루고자, 뜻과 다른 지기를 정적으로 여겨 무참하게 해치는 잔혹성을 드러낸 하륜 또한 자신이 즐겨 그렸던 것처럼 훗날 권력의 무상을 곱씹으며 변방 오지(양양 하조대)로 쫓겨나 쓸쓸한 생의 말로를 맞는다.

유학이 얼마나 표리부동한 이중적 출세지향주의였는가를 알게 하는 하나의 예로써, 옛 시조 가락을 들어보면, 도연명¹⁾의 인품을 흠모한 전원예찬 일색이다.

벼슬을 버리고 한가로이 시골 향리에서 은둔하는 ‘낙향’을 선비로서 최고의 이상적 덕목으로 삼았다. 하지만 실은 누구나 한양에 가서 벼슬을 하고 금의환향하려고 애썼다. 한 언론사에서 시조작가의 이력을 조사

해본 결과, 거의 전부가 한양에 머물며 벼슬 살이를 한 사람들이라고 밝혀지면서, 수백 년 이중구조적 의식이 투영된 문화현상을 조명할 바 있다.

날조된 ‘황진이와 지족화상’ 이야기

“…… 송도(개성)에는 유명한 삼절(三絶)이 있으니, 그것은 화담과 황진이와 박연폭포다. …… 10년을 한결 같이 참선수행한 지족화상은 황진이의 유혹에 끝내 못 이겨 파계하고 말았으나 화담만은 황금 보기를 돌보듯, 여색 대하기를 목석 대하듯 자신의 유혹에 아랑곳 않은 화담의 고매한 인품에 불도를 닦는 수도승보다 공맹의 유자가 더 낫다며 황진이는 화담은 평생 벗하고 섬겨도 좋은 선비라며 ……”

이는 한갓 허황스럽게 꾸며낸 야사일 뿐이다. 기생 황진이를 미화하고 유학을 숭상하며 불교를 깎아내리려는 악질적인 음모로써 펴뜨린 전형적 역불 왕조 잔재임에도 인기에 영합해 돈 되는 일이라 시중에는 이를 다룬 싸구려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늘 연극·사극 무대에 단골 메뉴 소재거리로 등장한다.

그런데 지족화상은 불교사에 이름도 승적도 찾아볼 수 없는 가상의 인물이다. 설령 실재했던 승려라 하더라도 불가에서 수행 10년은 아직 갈 길이 먼 연천(年淺)한 초

학자일 뿐이다.

유학자 서경덕과 기생 황진이를 배역으로 하여 있지도 않은 지족화상을 끌어다 파계승 역인 회생양으로 삼은 데는, 정치적 음모가 깔린 실록이나 야사(野史)에서 흔히 전해지는 시나리오일 뿐, 근거 없이 윤색하고 덧대 써내려간 삼류소설 격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 화담과 황진이 이야기는 불교를 가장 극심하게 탄압했던 중종 때이다.

화담과 막역한 사이였던 사람의 조광조의 주청으로 도화정치가 실시되는 가운데 배불·척불이 광란으로 치닫는 이 시기에 음흉하기 이를 데 없는 치명적인 자작극을 만들어 민심을 현혹하고 유폐시켰음을 추측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를 반증하는 일로써, 유학의 본 고장인 안동 하회탈 극 중에서 파계승 역의 춤꾼이 남의 여자 피어 등에 업고 가는, 보기도 민망스러운 해괴망측한 짓을 탈바가지 뒤집어쓰고 노는 가면극으로 만들어진 것도 이 무렵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뒷받침한다.

힘을 가진 자의 의지에 따라 쓰이는 것이 적어도 봉건 왕조 지배 역사 기록이다. 더구나 불교 말살을 획책했던 치국의 이념, 유학으로선 얼마든지 하고도 남을 날조된 조작극이었다.

왕조실록은 역사적 사실만 기록한 게 아니다. 권력과 세력의 주인이 바뀔때 따라 적잖은 부분을 개정·수정하며 손질을 했는

데, 과당이 잦고 사회(士禍)며 정변이 일어난 시기일수록 고친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선 왕조 양반 세도가들이 절을 기방으로 만들고 갖은 행패를 부리는 패악을 건다다 못해 스님들은 떠나가고 빈 절이 되면 불을 지르는 패륜적 행태가 오랫동안 행해지면서 생겨난 말이 ‘빈대 때문에 절이 폐사되었다’고 흔히 전해지는 속설의 이 ‘빈대’는 까닭 없이 남의 절에 와서 뜯어먹고 행패를 일삼는 유생·선비를 뜻하는 은어이다.

‘하회 탈춤놀이’에 남의 각시 업어가는 파계승 등장은, 유학의 고장으로 불교탄압이 극심했던 안동 땅에서나 거짓 꾸며됨이 가능한 일이다. 왜곡을 조장하는 엉터리 글들이며, 저질성 사극·연극 무대를 만들어 인기 좋은, 기생 황진이 절개 - 유생 서경덕의 고상함 - 지족화상의 파계 이야기는 정사(正史)에 없는, 허황스럽기 짝이 없는 비방·날조된 ‘불교 망치기 작업’의 악성 음해 설로써, 도리어 거짓 행실과 거짓말로 인해서 나라 망친 유학자들이 민심을 현혹하려 퍼뜨린 사기극을 두고, 늘 광고선전하듯 방영하며 또 그렇게 배운 탓에, 사회통합과 소통을 저해하는 요소의 이 같은 황당한 새빨간 거짓을 모두가 사실인양 인식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중종은 1510년(중종 5)에 각 도의 폐지한 사찰의 토지를 향교에 귀속시키고, 그 2년(1512) 뒤에는 흥천사와 흥덕사의 큰 종으로 총통을 만들게 하였으며 원각사를 헐어 그 재목을 연산군 때 집이 헐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동불을 부수어서 무기를 만들게 하였다.

1516년(중종 11)에는 <경국대전>에 있는 도승조²⁾(度僧條)를 지워서 빼어버리게 하였으며 1518년(중종 13)에는 도성 남쪽의 비구니사찰을 부숴버리고 기방을 만들어버렸다.

사태가 이 지경인 가혹한 5백년 송유역불국가에서 불교를 훼손시키고자 무슨 짓인들 못할 일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일 것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그로 인한 악영향은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나, 오늘날 일부 지식인들조차 불교에 대한 이해·인식이 신분 자질을 의심케 할 만큼 몰지각하다. 일례를 들어보자.

“……단속사터는 한국 불교사 내지 한국 사상사의 기념비적 유허인 것이다. …… 그러나 요사이 어느 종이 이 자리를 탐하여 농가와 흥정을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하여 화려방창한 새 절이 들어서는 날에는 단속사의 그옥한 맛도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작가의 이 말대로라면 옛 절터의 자리에

는 다시 절을 지어서는 안되며 ‘중’이 옛절을 복원하는 일은 곧 탐욕스러운 나쁜 일이 되고 만다. 대관절 어디서 이 같은 해괴한 법을 배워 아는지 모를 일이다.

시절인연 따라 쇠락한 절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당연히 주인 격인 스님네가 알아서 할 일인데도, 그에 관한 전후 사정일랑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윽한 맛’이 자칫 이상한 중 때문에 잃을 수 있다고 쓴 글은, 불교를 깔보고 비방하는 데 익숙한 상투적인 버릇에 지나지 않는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많이 팔리면서 돈방석에 앉았고, 그 명성으로 참여정부 시절, 문화재청장을 지낸 작가 유흥준씨의 글이다.

큰 돈이 된 그의 책 속에 관련된 글과 삽화 대부분은 민족문화재인 불교사찰 소장·보관물일 뿐 아니라, 그것을 배경으로 스님들의 참고 자료와 들려주는 역사 언저리에 깔린 이야기를 엮은 글로써 유명세(?)를 얻고, 부귀를 거머쥔 것은 결과적으로 사찰문화재와 스님들의 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은공을 조금이나마 안다면, 절과 스님들을 형편없이 업신여기는 그 따위 상식 이하의 글을 쓸 수 없는 일이다. 무릇 글재주에 비해 덕이 따르지 못함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게다. 결국 문화재청장 재임시 일어난 건국 이래 최대의 불난리(영동지방 산불, 2006년)를 겪으며 낙산사가 소실되었

고, 이어 전례가 없는 엽기적 방화에 국보 1호인 승례문이 불 타 잿더미가 되었으며, 국제 망신살이 뻗친 일련의 불행한 일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알고나 있는가 모를 일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써 머리로 헤아려 인식하여 머릿속이나 채우는 사랑분별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서 손끝과 입으로 새어나가기에, 돈과 이름을 얻을수록 마음 자리는 요동으로 험뻑이게 된다.

책과 학문은 그저 견문지식일 뿐, 밖을 향해서 쫓는 거기엔 실다움이라곤 없는, 객관의 끄달림을 거두어, 내 안에 깃든 참마음 자리를 관찰(자기 응시)하는 습성을 길들여야만 비로소 허기진 욕망이 갖는 과도한 탐욕과, 부와 귀함 또한 잠시 한 때 머무는 것일 뿐, 별거 아니라는 바른 소견으로써, 허상의 그림자에 빠질 만큼 집착하지 않게 된다.

1) 도연명(365~427) : 진나라 사람으로 관직을 버리고 청빈을 벗삼은 전원(田園)시인으로 명문(귀거래사(歸去來辭))가 있다.

2) 도승조 : 승려의 도첩제도를 명문화한 조항



꼬나가마나 부처님 이야기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지난호(2018년 5월호, vol. 281)에서는 보살(수메다)이 까꾸산다 부처님(연등불로부터 22번째 부처님)의 시대에 태어나서 수기를 받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까꾸산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적 번뇌를 제거하고, 마치 사자가 우리를 부수는 것처럼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후 법의 바퀴를 굴려서 수많은 중생을 통찰로 이끈다. 그때 고타마 석가모니 부처님은 '케마'라는 왕족이었는데, 상가와 까꾸산다 부처님에게 값비싼 보시를 한다. 그리고 그 부처님전에서 출가한다. 까꾸산다 부처님은 '케마'에게 '미래에 고타마 붓다가 될 것이다'라는 수기선언을 하신다. 까꾸산다 부처님은 4만 년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한 후, 케마숲 사원에서 반열반에 드신다.

우리 시대의 부처님인 고타마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초로 붓다(Buddha)가 될 것을 결의한 때인 연등부처님(dipaṅkara-Buddha)부터 시작하여 까짜빠 부처님(kassapa-Buddha)까지 총 24분의 부처님들로부터 붓다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연등불에서부터 시작하여 23번째의 붓다인 꼬나가마나불(koṇāgamaṇa-buddha)에게 수기 받는 내용을 불종성경(Buddha-vaṃsa)을 통해 보기로 한다.

[불종성경(Buddha-vaṃsa)_CST4: KN-Bvṃ, ch.25, vs.1-29) 의역]

_*(아래 주석 1번 참조)

1. 꼬나가마나 부처님 이야기_part 1

[vs. 1-2]_까꾸산다 부처님에 이어서, 정등각자이며, 두 발 가진 생명 가운데에서 최고인 부처님이 출현하시는데, 꼬나가마나(koṇāgamaṇa)라는 이름을 가진 승자이고, 세상에서 최고이고, 인간의 군주이다. 10법(10바라밀)을 충족하고, 사막을 건너고, 모든 불순함을 제거한 후, 최고의 정등각을 얻는다.

[vs. 3-6]_꼬나가마나 지도자께서 법륜을 굴리자, 3만 꼬띠(3천억)의 중생들에게 첫번째 통찰이 있게 된다. 신통력을 행하여 반대자[외도]들을 제압할 때, 2만 꼬띠(2천억)의 중생들에게 두 번째 통찰이 있게 된다. 그로

부터 몸을 변화시켜 승자께서는 천신의 도시(도리천)에 가신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등각자는 돌로 만들어진 제석천의 자리에서 머무신다. 그 성자는 7개의 논서(아비담마)를 설하면서 안거를 보내신다. 그때 1만 꼬띠(1천억)의 중생들에게 세 번째 통찰이 있게 된다.

[vs. 7-8]_그 신중에 신(꼬나가마나 부처님)에게는 하나의 모임이 있는데, 번뇌(āsava)가 파괴되고, 흠이 없고, 마음이 평화로운 그러한 모임이다. 3만명의 비구로 구성된 모임인데, 홍수(번뇌)를 극복하고, 죽음을 파괴하였다. _*(아래 주석 2번 참조)

2. 수기

[vs. 9-11]_그때 나(고따마 부처님)는 뱃바따(pabbata)라는 왕족(khattiya)이었는데, 친구와 신하들, 한없는 힘을 가진 가축들을 가지고 있다. 정등각자를 보기 위해 가서, 위없는 법을 들은 후, 승자와 함께한 상가를 초대하여 원하는 만큼 보시를 한다. 빠똌나 지역과 씨나지역에서 나는 비단, 털담요, 황금신발을 승자와 그 제자들에게 보시한다.

[아래 계승 15에서 출가하는 내용 참조]

[vs. 12-13]_그러자 꼬나가마나 부처님은 상가의 한 가운데에 앉아서 나에게 수기 하신다. “이 상서겁(bhadda-kappa)에 이

[뻗바따]는 붓다가 될 것이다. 힘찬 정진을 하고, 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며, 앓싸타(assattha)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깨닫고, 큰 명성을 얻게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마야(māyā)라 하고, 아버지는 슈도다나(suddhodana), 그리고 그는 고탓마(gotama)가 될 것이다. 꼴리따(kolita : 대목 건련)와 우빠뻗싸(upatissa : 사리뻗따)가 그의 상수 비구 성문제자가 될 것이며, 아난다(ānanda)라는 시자가 그 승자(jina)를 시봉할 것이다. 케마(khemā)와 우빨라완나(uppalavaṇṇā)가 그의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가 될 것이며, 그 세존이 깨달음을 얻은 나무는 앓싸타(assattha)라고 할 것이다. 찌따(citta)와 하탈라와까(hatthālavaka)가 그의 상수 재가 남성신자가 될 것이며, 윗따라(uttāra)와 난다따마(nandamātā)*가 그의 상수 재가 여성신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고탓마 부처님의 수명은 100년 정도가 될 것이다._*(아래 주석 3번 참조)

비할 데 없는 위대한 성자(까꾸산다 부처님)의 말을 듣고, 신과 인간들은 기뻐하면서 ‘이것이 불종자(buddha-bija)이다’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선언이 계속되자, 일천 세계의 신들은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합장한 손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수호자(까꾸산다 부처님의 회상에서 실패한다면, 먼 미래

에 이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할 것이다. 마치 [지금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 쪽 강 언덕에 이르는 여울목에 이르지 못하자 [나중에 좀 더 낮은 쪽의 여울목을 타고 큰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 [까꾸산다부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 먼 미래에 저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하여 [그의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_*(아래 주석 4번 참조)

[vs. 14] 내[뻗바따]=미래의 고탓마 부처님]가 이 말을 들은 후에, 마음이 더욱더 기뻐지고, 10바라밀(pārami)을 충족하기 위한 결의를 더욱더 다진다.

3. 꼬나가마나 부처님 이야기_part 2

[vs. 15-17] 일체지를 구하면서, 최고의 인간에게 보시를 하고, 큰 왕국을 버리고, 승자의 회상에서 출가한다. [꼬나가마나 부처님이 살던] 도시의 이름은 소바와띠(sobhavati)이고, 소바(sobha)라는 이름의 왕족이다. 그 도시에는 정등각자의 많은 종족이 산다. 그 꼬나가마나 부처님의 아버지는 얀나뻗따(yañnadatta)라는 바라문이고, 어머니는 윗따라(uttāra)이다.

[vs. 18-19] 일체 3천년 동안 집에서 머무는데, ‘뚜시따(tusita), 산뚜시따(santusita), 산뚜타(santuttha)라는 세 개의 뛰어난 궁전

을 가지고 있다. 1만 6천명의 아름답게 장식된 여인들이 있으며, 부인의 이름은 루찌갓따(rucigattā)이고, 아들은 샷타바하(satthavāha)이다.

[vs. 20-21] 인생의 네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본 후에, 코끼리를 타고 출가한다. 그리고 최고의 인간(포나가마나 부처님)은 6개월간 고행정진을 하신다. 범천의 요청이 있자, 포나가마나 지도자, 큰 영웅(mahāvira), 최고의 인간(naruttama)인 포나가마나 부처님은 법의 바퀴를 굴린다.

[vs. 22-24] 스승이신 포나가마나 부처님의 최고 상수 비구 성문제자의 이름은 비야사(bhiyasa)와 윗따라(uttara)이고, 시자는 소티자(sotthija)이다. 최고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의 이름은 사뭇다(samuddā)와 윗따라(uttarā)이다. 그 세존이 깨달은 나무는 우둠바라(udumbara)라고 불린다. 으뜸가는 재가 남성신자는 웃가(ugga)와 소마데와(somadeva)이고, 으뜸가는 재가여성신자는 시왈라(sivalā)와 사마(sāmā)이다.

[vs. 25-27] 그 [포나가마나] 부처님의 신장은 30하타(14m)이고, 용광로의 입구처럼 둥글게 [후광] 빛이 장식되어 있다. 그때의 부처님의 수명은 3만년 인데, 그렇게 오래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히의 바다를 건너게 한

다. 법의 무더기를 들어올리고, 법의 천을 장식하고, 법의 꽃다발을 만든 후, 그 [포나가마나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반열반에 드신다.

[vs. 28-29] 찬란한 그의 제자들은 빛나는 법을 설하는데, 이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 모든 형성된 것은 공하지 아니한가? 포나가마나 정등각자는 뺏바따 숲사원에서 반열반에 드신다. 그리고 사리는 여기저기 많은 지역에 퍼진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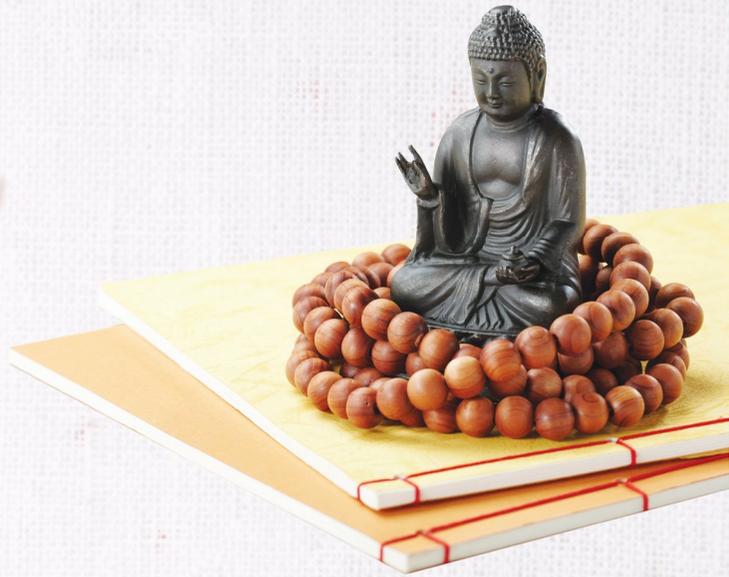
*주석1: 여기의 불중성경은 세존이 정각 후 처음 자신의 고향인 까뻬라와투를 방문할 때 자신의 친족들에게 이 중신통을 보인 후에 설하였다고 한다. [KN-Bvm-a-gaṇtharambha-kathā]

*주석2: 여기에 나오는 큰 숫자들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큰 수'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주석3: 불중성경(KN-Bvm ch.2, n. 69)에서는 윗따라와 난다마따를 마치 두사람인 것처럼 기록하지만, 앙굿따라 니까야(AN1, n. 262)에서는 한사람으로 나타난다.

*주석4: 원문의 계승 10-11번에서는 수기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요약되어 있는데, 곧단나 부처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vs 11-21)에 근거하여 생략된 부분을 보완한다.





금강경, “중심은 공이다”

불교의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불교의 경전은, 1차 결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다시 암송하는 것이었다. 즉 현재처럼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암송하여 부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그 후 3차 결집 때 비로소 문자화되면서 책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경전은 시대적과 사상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는 크게 경(經), 율(律), 논(論) 세 가지로 분류한다. 사상적으로는 소승경전과 대승경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승경전에는 아함경, 열반경, 범망경, 법구경, 유교경 등이 있고 대승경전에는 대품반야경,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무량의경, 유마경, 화엄경, 무량수경, 아미타경, 능가경 등이 있다.

미란타왕문경(彌蘭陀王問經)

경전의 원명은 <밀린다광하(Milindapanha)>이다. 한역에서는 <미란타왕문경> 또는 <나선비구경>이라 한다.

기원전 150년경 서북 인도를 지배한 그리스왕 밀린다(메난드로스)와 불교경전에 정통한 학승 나가세나(Nagasena, 那先) 사이에 오고 간 대론서(對論書)이다. 당시의 그리스적(서양적)인 사유와 대비라는 면에서 동서 사회의 가치관이나 종교관을 비교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또한 역사상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처음으로 교류했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미란타왕문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질문 하나 하나가 조금도 낡았다는 느낌을 주지 않거니와, 오늘날 우리들의 불교에 대한 의문을 그리스왕을 통해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영혼론, 개체의 구조, 윤회의 주체와 선악 업보의 문제 등을 논하고, 또 불교의 독자적인 지식론이나 심리현상의 고찰 또는 불타론이나 해탈, 열반에 대한 실천 수행론 등 다방면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교 교리상의 여러 문제를 어렵고 까다로운 아비달마 교학과는 달리 날카로운 질문과 간명한 해답으로 아주 선명하게 해명하고 있어서, 현대인의 불교 입문으로서 손색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일반 경전이 출가자를 중심으로 재가신자는 출가자를 위해 보시하고 예배, 공양하라고 가르치는 반면, 이 경전은 출가자의 우위를 표면에 내세우면서도 재가신자도 출가자와 똑같이 궁극의 목적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불설(佛說)이 아니기 때문에 스리랑카에서는 팔리 삼장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미얀마(버마) 불교에서는 경장의 소부경전 속에 수록하여 대단히 존중하고 있다.

한역본으로 역사 불명인 <나선비구경(那先比丘經)>이 전해오며, 이본으로는 팔리본 3종류로 스리랑카본, 트랜크너본, 삼본 등이 전해온다. 경전 후미에 보면 왕이 던진 질문은 304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36문이 전한다.

화엄경(華嚴經)

<화엄경>은 부처님이 성도한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하고 있는 경전이다. 대승 경전 중에서도 교학적, 사상적으로 불교의 핵심을 가장 깊게 담고 있다. <대방광불화엄경>의 약칭으로 각 장이 독립된 경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4세기경에 집대성했다. 한역에는 6본이 있으나 지금은 3본만 전해 오고 있다. <60화엄>, <80화엄>, <40화엄>이 그것이다.

<60화엄>은 418~420년에 중국 동진의 불

타발타라(佛陀跋陀羅)가, <80화엄>은 695~699년에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40화엄>은 795~798년에 당나라 반야(般若)가 각각 번역했다.

이 중 <40화엄>은 <60화엄>과 <80화엄> 속에 있는 마지막 장인 <입법계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60화엄>과 <80화엄>이 한역의 완본이라 할 수 있다.

<60화엄>은 7처 8회 34장, <80화엄>은 7처 9회 3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處)와 회(會)란 경을 설한 장소와 모임의 횟수를 뜻한다. <60화엄>에 따르면 제1 적멸도량회는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의 주위에서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의 덕을 칭송하고 있다. 이때 부처님은 이 경의 교주인 비로자나불과 한 몸이 되어 있다.

제2 보강법당회에서는 부처님이 사자좌에 앉아 있고 문수보살이 고탐멸도(苦集滅道) 사성제를 설한다. 또 10보살이 10종의 깊은 법을 설한다. 제3 도리천회, 제4 야마천궁회, 제5 도솔천궁회, 제6 타화자재천궁회는 설법의 장소가 천상으로 각각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를 뜻하는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廻向), 십지(十地)에 대해 설해지고 있다.

제7회는 다시 지상의 보광법당회로 지금까지의 설법을 요약하고 있다. 제8에서 다림회(기원정사)는 <입법계품>으로 선재동자가 보살에서 외도에 이르기까지 53인의 선지식

을 찾아 구도하는 과정을 묘사하여 정진이 곧 불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만나는 선지식 중에는 보살만이 아니라 비구(니), 소년, 소녀, 의사, 장자, 바라문, 창녀 등 가지가지의 직업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다. 이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보리심의 유무가 문제라는 대승불교의 수도(修道)의 이상(理想)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법화경>의 천태사상과 함께 대승교학의 쌍벽을 이루고 있다.

금강경(金剛經)

금강과 같이 견고하여 어떠한 번뇌와 집착도 깨뜨려버릴 수 있는 부처님 말씀이라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읽혀지고 유통되었던 경전이다. 원명은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또는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이라고도 한다. 반야부 계통의 경전 중 반야심경(般若心經)과 더불어 가장 많이 독송되었다. 특히 선종에서는 5조 홍인대사 이래로 중시되어 온 경전으로서, 불교경전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경이다.

중심 사상은 역시 공사상이다. 철저한 공사상에 의해 번뇌와 분별하는 마음을 끊음으로써 반야의 지혜를 얻어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공제일(解空第一)인 수보리(須菩提)가 금강경의 주인공이란 점은 이 경전의 내용을 짐작케 하고 있다. 그러

나 공사상을 천명하면서도 공(空)자가 한 자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이는 아마도 이 경이 대승불교의 초기에 성립된 것으로서 아직 공이라는 술어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경에 서는 대승과 소승이라는 의식도 분명하지 않아 두 관념도 아직 성립되기 이전의 경전으로 보여진다.

경전의 구성을 살펴보면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공의 이치를 가장 잘 터득하고 있었다는 수보리존자(須菩提尊者)와 부처님이 문답식의 대화를 전개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법회인유분 제1에서 시작하여 옹화비진분 제32로 끝나고 있다. 그 사상의 골자는 철저한 공사상에 입각한 윤리적 실천에 두고 있다. 특히 이 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문구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다.

6조 혜능(慧能)이 어느 날 <금강경>을 읽다가 바로 이 대목에서 홀연히 깨달았다고 할 만큼 특색 있는 표현이며, 핵심적인 문구로서 선종에서 매우 중요시 여기는 어구이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라’ 라고 해석되는데, 달리 표현하면 ‘일체의 것에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활용하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집착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로 마음을 쓰라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평등즉차별’, ‘차별즉평등’이라는 중도의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마라집의 역본이 한역으로는 최초의 번역이다. 한역된 경전의 경우 기원 전후로부터 용수(龍樹)까지가 초기대승, 용수로부터 무착, 세친까지가 중기대승, 무착, 세친 이후를 후기 대승시대로 분류한다. 구마라집의 역본 가운데 ‘후오백세(後五百歲)’라는 문구가 보이고 있는 점등을 들어 이 경의 성립을 대승불교 중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의 원효스님이 ‘금강경소’를 저술한 것을 비롯해 많은 주석서가 전해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금강경은 사교(四教 : 능엄, 반야, 기신, 원각)의 하나로 분류되어 스님들의 전문 교육기관인 강원의 교재로 사용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종파에서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삼고 있어 금강경이 한국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한역에는 6종이 있으나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1권)이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다.





1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투신 참뜻은?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지난 5월 22일 오전 11시 법왕사 대적광전에서 200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법요식에서 주지 실상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나투시어 중생을 제도하고자 했던 뜻을 깊이 되새겨 이 시대 불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다짐하자'고 호소했습니다.

- 1 봉축 법문을 하는 실상 주지스님
- 2 법당에 차려진 관옥대에서 아기 부처님을 물로 씻어 드리는 관불 의식을 행하고 있다.
- 3 법요식에 동참한 불자들이 불전에 삼배를 올리고 있다.
- 4 봉축 법요식을 더욱 여법하게 장식한 우담바라 합창단의 합창 모습.



2



3



4



- 5 불단에 꽃, 향, 과일, 차, 촛불 등 여섯가지의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공양 의식
- 6 법요식 축사를 하는 정안식 전 거사님 회장
- 7 봉축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 8 어린이 두 명이 어린이 발원문을 낭독하는 모습
- 9 주지스님께서 해오름요양원 근무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 10 법요식 이후 펼쳐진 부채춤 등 전통문화공연 모습





노인의 건강,

그리고 운동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여 일상생활을 즐겁고 쾌적하게 할 수 있으며, 운동이나 여행 등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강이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개념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체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각종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 노화는 사회활동의 감소와 함께 심리적 불안정을 촉진시켜 전체적인 건강을 저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특징으로는 백발, 주름살, 거친 피부, 청력 손실, 시력 저하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외견상의 특징으로 노화를 판단할 수 있으나 개인간 차이는 심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노인에게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변화는 거의 공통적으로 체중의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노인의 세포 성분이 젊은이에 비하여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어떤 의미로 볼 때 태어나면서부터 노화가 진행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형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 내의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체력의 저하로 운동기능이 떨어지고 심장과 폐의 기능 및 면역능력이 저하되어 쉽게 질병에 걸리고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도 젊은 사람보다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화현상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노화의 과정은 더욱 가속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신체는 활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도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와 같이 활동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을 때에는 노인들의 건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증진시켜 밝고 적극적인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자신의 운동능력에 맞게 운동을 일주일에 3~5일간씩 3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실천한다면 심장이나, 폐 순환 기능 및 근육의 기능이 향상되며,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키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

험요인도 제거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체력이 향상되고 노화가 방지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울증이나 무력감, 불안감이 해소되어 노년기에도 활발하고 희망찬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평소에 건강하게 보일지라도 질환의 가능성과 기능의 저하, 그리고 체력이나 신체조건의 개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운동 전에 반드시 의학적 진단을 통하여 본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해보고, 체력검사나 운동 부하검사를

노화를 늦춰주는 '운동'

노화현상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노화의 과정은 더욱

노인에게 좋은 운동

- 발 자전거 타기
30~50회
- 팔 밀어내기(앞, 옆, 뒤)
10~20회
- 다리 밀어내기(앞, 뒤)
10~20회
- 다리 돌리기
10회
- 무릎 굽혀 잡고 가슴에 붙이기
10회
- 호흡하기
3회 정도
- 아령 들기
- 걷기(서기 힘들면 앉아서 행진하기, 제자리 걷기)
- 스트레칭(목, 어깨, 팔 등)
- 손, 발목 운동

일주일에 3~5일간씩 3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실천한다면 심장이나
근육의 기능이 향상되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도 줄어든다.



통하여 운동을 해도 괜찮은지를 파악하고 개인의 운동능력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등 만성퇴행성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부상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운동할 땐 주의하자!

노인이 운동함에 있어 주의할 사항을 알아본다면 첫째, 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피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팔과 다리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의 육구, 건강상태, 장비와 시설 그리고 기호나 가용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관절부위 및 활동근육에 무리를 주지않는 운동을 선택하여 한 시간 정도 지속할 수 있는 강도로 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동의 강도조절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 운동

전후에 가벼운 몸풀기를 하도록 합니다. (예, 가벼운 보행, 스트레칭 등) 일곱째, 운동 후 몸이 풀려 있을 때 꼭 근육을 펴는 체조 등으로 정리운동을 합니다. 여덟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갈증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운동으로 땀을 흘린 경우에는 음료를 마시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시작하면 심박수 및 혈압의 증가, 활동근의 혈액 공급증가, 교감신경 긴장 등 호흡 순환계와 자율신경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현상은 운동 중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5~15분 정도 가벼운 런닝과 스트레칭 그리고 본 운동과 같은 동작을 짧게하면서 곧 쓰일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준비운동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는

마지막으로 운동 후 주의사항을 알아본다면 첫째, 정리운동입니다. 땀을 흘릴 정도 이상의 운동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리운동을 해

야 합니다. 본 운동이 끝난 다음 곧바로 완전히 운동을 중지해 버리면 구역질, 현기증, 냉한, 저혈압 서맥 등의 혈관성 미주신경반사에 의한 증상을 일으켜 중대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운동 후 안정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분 정도 걷거나 또는 느린 속도로 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샤워와 목욕입니다. 운동 후 샤워는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피로회복을 촉진합니다. 목욕은 피부를 깨끗이 하고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여 몸속 노폐물의 배설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운동직후의 냉수 샤워나 뜨거운 샤워는 체내의 급격한 온도변화를 가져오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샤워나 목욕은 1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한 후에 심박수가 안정시의 정상상태로 되돌아오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약간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운동 후의 식사와 수면입니다. 운동 후 음식을 바로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주므로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 적어도 10~2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면은 피로회복에 가장 좋으며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회복도 늦어지고 신체 조절이 어려울 수도 있어 운동량이 많은 날은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날 생활이 개선되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짐

에 따라 사망률이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60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52.4세였으나 1995년에는 73.5세로 연장되었으며, 2030년에는 81.5세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통계청, 2001).

이와 같이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높아지는 것은 좋으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들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6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73만명(전체인구의 2.9%)이었으나 2000년에는 339만명(7.2%)이 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고, 2030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명이 넘게 되고 전체인구의 23.1%나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가 된다면 노인성 만성질환과 치매환자 및 심신 장애 환자들이 많아지게 되어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의존성 노인이 증가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한 가운데,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사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활력을 증가시키며 원기를 왕성하게 해주고 면역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향상 및 치매 발생도 감소시켜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주므로 자신의 운동능력에 맞는 운동을 필수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왕사 소식

3층 만불전 지장단, 평생위패단 새단장



복지관 3층 만불전의 지장단과 평생위패단을 새단장 하였습니다. 명부를 주관하는 지장보살을 주불로 모시고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를 모시는 곳을 여법하게 갖추어서 불자들은 선망부모를 더욱 여법하게 추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우담바라합창단 불교연합합창제 참가



지난 5월 17일(목) 오후 6시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달구벌 관동놀이 대구·경북불교연합합창제'에 법왕사 우담바라합창단(지휘 정무시)이 참가하여 대구의 여러 불교 합창단과 협연하였습니다. 합창단은 이에 앞서 16일(수) 오후 6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법요식에 참여하였고, 19일 오후 6시에는 두류야구장에서 열리는 제등행렬에도 동참하여 법왕사의 여법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중단 신중탱화 봉안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5월 17일 불자 2백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적광전 신중단의 104위 신중탱화 봉안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신중은 정법을 수호하는 기능뿐 아니라 대승불교시대에는 호국의 기능까지 갖게 되는 존재로 원래 인도의 재래신들이 불타의 자비심에 감동되어 불교에 귀의한 후 불법의 유통과 옹호를 맹세한 성중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중신앙은 신중탱화로 발전하여 대웅전, 극락전을 비롯한 모든 불전에 봉안되는 필수적인 불화로서 불전의 내부를 향하여 오른쪽 또는 왼쪽에 모시는데 이날 법회에는 이번 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이 불화의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이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탱화의 점안법회는 오는 6월 23일에 봉행합니다.

6월 12일 해능스님 백고좌법회 수계법회



오는 6월 12일 제35회 백고좌법회 회향일에는 전 해인사 울원장 해능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보살계 및 불명수지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회는 100일 간의 백고좌법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서로 그동안 들은 법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의식입니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생신 다례재 봉행



법왕사에서는 6월 2일 원공당 정무 대종사 생전 생신을 맞이하여 생신 다례재를 봉행합니다. 이날 법왕사 대적광전에서는 생전에 감로 법문을 내리셨고 우리 불자들이 이끌어 주셨던 큰스님의

유덕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생신 다례재를 봉행하면서 스님을 추억하고 가르침을 이어가겠다는 다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평소 스님의 법문에 감화를 받은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연담스님 아함경 불교대학 개강



연담스님께서 강의하는 아함경 강좌가 지난 5월 12일 개강하였습니다. 법왕불교대학의 원시불교 강좌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는 모두 15여명이 신청하였는데 강의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 2시~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아함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당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대소승의 구별도 없어 후세에 발달하는 불교의 원천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를 근본불교 또는 원시불교라고 하여 불교 고리연구의 기초로 삼아왔으며 부처님 재세 당시 초기 불교의 모습을 공부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경전입니다.

제35회 백고좌법회 회향 삼사순례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6월 17일(일) 제35회 백고좌법회를 회향하고 기념 삼사순례 이동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순례법회 대상 사찰은 전남 지역의 고찰들로 화순 운주사, 나주 불회사, 화순 쌍봉사입니다. 이들 고찰은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씩 참배하고 싶은 유서 깊은 곳으로 옛 백제 불교의 향기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봉행



지난 5월 22일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법왕사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대적광전에서 5백여 불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봉축법요식을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법요식은 오전 10시 타종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봉축사, 법문, 발원문 낭독 등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중간에 부채춤, 민요, 흥춤 등 전통 예술공연을 배풀어 더욱 흥겹고 뜻깊은 법요식을 연출하였습니다.

법왕사 소식

한편 불자들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을 행하고 연등을 밝히며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되새기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5월 19일 제49회 경로잔치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5월 19일 토요일 복지관 전시실에서 지역 어르신 1천 여분을 초청하여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고 흥겨운 잔치 한 마당을 베푸는 경로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번 경로잔치에는 법왕사 불자와 신행 단체 회원 등 1백여명이 자원봉사를 하였으며 또한 많은 불자들이 잔치에 필요한 음식과 물품들을 보시하였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애망원에 물품 보시

법왕사에서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법왕사 이웃인 애망원에 쌀 10kg 들이 10포대와 현금 10만원을 보시하였습니다.

6월 12일 운불련 정기법회 봉행

오는 6월 12일 대구 운불련 정기법회가 4층 대적광전에서 사흘 동안 열립니다. 운불련 회원들은 매월 정기법회를 법왕사에서 봉행하는데 법회에는 법왕사 실상주지스님께서 법문하십니다.

7월 4일부터 제36회 백고좌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7월 4일 제36회 백고좌법회를 입재합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백고좌법회는 이날부터 10월 11일까지 100일 동안 계속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에서는 불자 여러분의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구독 신청은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구독료는 사보 제작은 물론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법보시에 활용되는 등 큰 공덕을 쌓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로는 법왕사 종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3-766-3747
- 팩스 | 053-767-6095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편집실



새로 오신 법우님

동 구 김창만 신도식 김정하 김영희
 서 구 신덕수 권상구
 북 구 박창모
 남 구 박재주
 수성구 이치현 박승우 손승구 윤지원 장영화
 석응영 박상대 김재의 김진복
 달서구 김중호 정철화 이규철 구태원 송흥복
 고영자
 달성구 강해성 최혁준 백성민
 서울 현경암
 경산시 권중묵
 포항시 정원동
 울산 백귀옥 김덕호
 경기도 권기환
 임만택

사보 도움 주신 분

박정숙 300부 장정희 200부 김광길 100부
 남상일 2만원 김병청 1만원 최은향 300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양 올리신 분

◎ 공양미 올리신 분

정영웅 심보현 구제철 장민제 윤영숙
 권태형 김주현 이상호 仝류선희

◎ 떡공양 올리신 분

안준영 이승재 이세정 박세은 김정석
 김근태 양문갑 양영갑 박계옥 장재혁
 백철기 임유나 엔디장 최종열 사공순옥
 성진경(약법) 김근태(입재) 김근태(2재)
 자원원신도일동

◎ 물품 보시하신 분

백월순 신근배 이종량

◎ 저금통 회향하신 분

박근수 박종흠 임영근

◎ 과일공양 올리신 분

권중훈

◎ 경로잔치 공양 올리신 분

이원석 김종황 사공관 김호연 신영균
 성 윤 조동선 박종길 김남숙 여축동
 김민지 김영홍 제갈욱 계해정 조규인
 오진환 류윤만 장미야 이승민 이수환
 김정석 허정현 여축동 이서현 이정화
 양영갑 박근수 권상태 양문갑 이종량
 박순희 김봉원 박재완 방지현 이영애
 권숙화 박경훈 이윤수 오영근 권중오
 권순예 제갈욱 산사회 신장희 지장희
 관음회 자비회 권마하연 백대행삼
 이마하심

◎ 초파일 공양 올리신 분

이병노 이해경 여택동 여영동 권봉환
 이원석 옥영규 심보현 제갈욱 김정남
 금태운 박은혜 황미선 권영숙 오진환
 김근태 백철기 전재술 권춘자 이기창
 양문갑 이종량 박순희 김종원 양영갑
 박근수 권상태 이정화 김근태 백철기
 박재완 최종열 백종원 심소미 김유창
 강춘희 강정선 정안식 조옥희 신근배
 성 윤 김순자 배해동 강대철 이승민
 하경훈 고영자 김상한 임분자 백월순
 이재학 임인한 김경찬 김경현 정해웅
 조분기 최옥선 이재왕 김성원 정해웅
 임분자 김승현 이우호 안경순 백장자
 김일곤 박정애 이준영 김순태 하경웅
 이세정 지장희 자비회 사공순옥
 구실성화 윤견불심 백대행삼

불사 올리신 분

◎ CMS 불사하신 분(~5/25)

강우주 1만원 성점순 1만원 전성복 1만원
 김관용 5천원 송윤선 7만원 정재순 3만원
 김명선 2.5만원 심규암 1.8만원 최라임 5만원
 김성미 5천원 심영선 1.5만원 최진석 5천원
 김성자 1만원 오재대 1만원 한천숙 1만원
 김수라 3만원 오창혁 1만원 황국희 2.5만원
 김연자 1만원 이숙희 2만원 황덕선 5천원
 류윤희 1.5만원 장미야 4천원

◎ 일년등 올린 분(초파일 가족등)

334 이상호 335 김동휴 336 박무착심
 337 권혁일 338 장철영 339 이원화 340 민정기
 341 안명희 342 최규철 343 양문갑 344 임재형
 345 양영갑 346 김윤호 347 김봉조 348 정창근
 349 김진성 350 이우호 351 조옥희 352 김석균
 353 황치구 354 이재우 355 문군식 356 박상하
 357 박재용 358 안중영 359 이덕례 360 김정옥
 361 배석록 362 이현국 363 이종석 364 최재훈
 365 이원석 366 진홍사 367 김현태 368 이한결
 369 신정순 370 류호진 371 차운재 372 정근순
 373 조병호 374 피경호 374 김창만 375 김창만
 376 남철우 377 문옥계 378 황세윤 379 윤규웅
 380 홍분희 381 채금연 382 서길수 383 이춘옥
 384 심재명 385 박이웅 386 도호천 387 안주선
 388 전순옥 389 배한업 390 김진환 391 양복임
 392 이희숙 393 권혁태 394 최창기 395 송동철
 396 황대석 397 황정석 398 황성호 399 김순근
 400 이치현 401 서재우 402 박승우 403 이팔윤
 404 흥현덕 405 계해정 406 김광현 407 홍경호
 408 권동희 409 손금자 410 이영철 411 김덕년
 412 정원동 413 구석태 414 윤금숙 415 김종갑
 416 최창희 417 조용성 418 정기철 419 임영환
 420 김덕환 421 서상용 422 박찬식 423 박혁범
 424 신석봉 425 권태은 426 방형욱 427 장익수
 428 손말두 429 김승열 430 홍준영 431 지혜림
 432 정재규 433 이정례 434 최주원 435 김광희
 436 이승협 437 백귀옥 438 김오현 439 박재현
 440 이원하 441 이성승 442 현경암 443 손승구
 444 이태석 445 권기환 446 권상구 447 권봉환
 448 석종세 449 신병주 450 김영복 451 윤병재
 452 박정명 453 최수길 454 박지원 455 정신동
 456 정상동 457 윤봉한 458 김두섭 459 강상조
 460 손정철 461 이문진 462 김태욱 463 오세철
 464 김 건 465 이승주 466 이종환 467 홍승표
 468 정진환 469 강병주 470 김금순 471 양덕균
 472 박창모 473 조재용 474 김순익 475 도창중
 476 김재호 477 이옥순 478 임현우 479 김영곤
 480 함금엽 481 정상열 482 김기억 483 김재석
 484 이옥남 485 이수정 486 차순자 487 고광철

488 성점순 489 권중목 490 박종출 491 박성용
 492 김헌태 493 장무진 494 박의건 495 우길원
 496 권태신 497 오창혁 498 김영희 499 배성한
 500 이보형 501 조임조 502 김형기 503 권오삼
 504 채연수 505 전태일 506 서창욱 507 이종표
 508 이범영 509 정철화 510 김일선 511 이호철
 512 배복선 513 문춘음 514 유옥재 515 신동희
 516 하태정 517 김경일 518 진상현 519 이규원
 520 장창원 521 염길태 522 김광렬 523 송영철
 524 송상규 525 박재완 526 우인환 527 임석준
 528 이일희 529 최승원 530 장성수 531 전진무
 532 장영화 533 황부원 534 권영도 535 이윤수
 536 석응영 537 홍승민 538 박재주 539 윤선주
 540 채의근 541 김진웅 542 박일수 543 정연수
 544 나영옥 545 황순녀 546 박노근 547 김옥란
 548 권동우 549 김성주 550 가창농업협동조합
 551 김수덕 552 남상호 553 성철수 554 박철용
 555 김성도 556 김무섭 557 박상환 558 이수희
 559 장영우 560 임상찬 561 백성민 562 김정석
 563 이상윤 564 양종선 565 김장만 566 강대웅
 567 강신구 568 박정목 569 최병남 570 권병인
 571 남광현 572 박순국 573 김재현 574 강대철
 575 김갑순 576 진경주 577 박영근 578 권순삼
 579 이연이 580 김달원 581 이용용 582 홍분희
 583 박희성 584 전애만 585 백영두 586 박재민
 587 류태곤 588 구영희 589 최용석 590 권오진
 591 이상혁 592 이정규 593 김태현 594 홍덕현
 595 임만택 596 권태점 597 한천숙 598 김윤정
 599 신상용 600 박감로화 601 정윤재 602 이준협
 603 우종돌 604 김정숙 605 박성욱 606 박의창
 607 최종호 608 김평국 609 김상훈 610 김덕길
 611 김기연 612 김기홍 613 최남석 614 정동영
 615 최제운 616 이희상 617 서복만 618 박기성
 619 박재영 620 오현미 621 박상대 622 채종효
 623 강성태 624 김두현 625 신시훈 626 황용순
 627 이철우 628 곽연향 629 서규선 630 손양덕
 631 김종태 632 이영환 633 문동식 634 김광수
 635 조준승 636 조병완 637 김기현 638 김봉일
 639 김복옥 640 전득근 641 김정하 642 정용진
 643 홍중흥 644 이병관 645 채희두 646 이영순

647 이순재 648 박수영 649 문복수 650 박종근
 651 안중욱 652 이상봉 653 김재엽 654 박정휘
 655 김경열 656 김명수 657 양현형 658 김복순
 659 배기철 660 추재천 661 임재록 662 정왕국
 663 정의화 664 서성배 665 장용기 666 김동하
 667 장두욱 668 조용호 669 박종규 670 한순복
 671 김중수 672 손대호 673 조수원 674 이외순
 675 현상호 676 장현목 677 김세송 678 이상태
 679 김월봉 680 권영세 681 손병일 682 박호황
 683 김용관 684 박인철 685 최순화 686 이종락
 687 이진우 688 권혜경 689 김재의
 690 동명유치원 691 정태호 692 신덕수
 693 김상수 694 도재용 695 조태섭 696 양귀순
 697 송정욱 698 이호규 699 송성희 700 송성희
 701 채태숙 702 정다현 703 윤동환 704 이귀연
 705 최규환 706 김원진 707 김영구 708 이경섭
 709 최중욱 710 조규철 711 김도열 712 박대영
 713 임귀연 714 이재후 715 조기수 716 장락상
 717 곽영우 718 구태원 719 김진복 720 김덕호
 721 최윤석 722 이종호 723 이경락 724 설동구
 725 손영준 726 전태병 727 고태경 728 이광덕
 729 이치우 730 김상수 731 권치호 732 이상규
 733 허전명 734 권용오 735 권오종 736 이돈식
 737 이용호 738 이정순 739 변성섭 740 조만수
 741 강대구 742 신용술 743 신영준 744 김태식
 745 박진원 746 임상범 747 박옥순 748 송진준
 749 류태수 750 방인호 751 임일금 752 김기선
 753 김우영 754 김우영(차량등) 755 김임선
 756 배용호 757 장성수 758 전병열 759 차미희
 760 곽천택 761 최성진 762 오정식 763 이재희
 764 송흥복

◎ 영가등 올린 분(복위자)

83 신정순 84 김창덕 85 김정석 86 김정석
 87 송용훈 88 우성규 89 송동철 90 안중현
 91 조현갑 92 최용식 93 최영희 94 권동희
 95 조춘자 96 정신동 97 박해진 98 백월순
 99 주정순 100 장우성 101 장경숙 102 제갈욱
 103 우연희 104 김민정·김은재 105 김중호
 106 조성순 107 박정명 108 최영봉 109 이희동

110 전승희 111 오세철 112 김현숙 113 김정하
 114 서정수 115 조재용 116 손말레 117 이기창
 118 백순도 119 박근수 120 김유빈 121 박일홍
 122 염길태 123 염길태 124 신진호 125 박재완
 126 현우훈 127 정연수 128 임미성 129 정선규
 130 박근호 131 황순녀 132 황순녀 133 김성도
 134 나영연 135 이세정 136 한승욱 137 권경오
 138 오병화 139 감대철 140 김애경 141 이상호
 142 김호연 143 서규선 144 이창수 145 김소영
 146 박찬용 147 이현찬 148 한창수 149 조태섭
 150 서명희 151 위장욱 152 도경식 153 전동재
 154 최용식 155 최현지 156 정덕인 157 김세송
 158 최승환

◎ 초파일등 올린 분

16 이준우 17 백승현 18 허순득 19 김상윤
 20 김동겸 21 정인순 22 임현우 23 김상원
 24 박성근 25 가창골 26 김찬호 27 신진우
 28 한금복 29 김철환 30 김수근 31 이이근
 32 조영석 33 박태조 34 조병호 35 장기면
 36 최재승 37 권병기 38 추순인 39 전삼수

◎ 단청등 올린 분

56 대영공인중개사 김정남
 57 창진중기 우재균·우승복
 58 계해정한의원 계해정 59 차목원 강해성
 60 고평마을어린이집 윤지원 61 우포정사 영범스님
 62 대영채비 정만교 63 정일수산 박찬덕
 64 경일신경과 내과 조준승 65 육법공약회원일동
 66 박성호 67 권오삼 68 전형진
 69 (주)클라우드앤 김정석 70 오광진
 71 변호사 남호진 72 김정규
 73 한도산업(한도PMO) 금건수

◎ 대등 올린 분

3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임대윤
 4 애망원 어린이 일동 6 포항농협 오광지지점
 6 이화꽃집 김혜정 7 카페파스쿠찌 송화준

◎ 본당인등 올린 분

403 김상수 404 김경문 405 김경목

◎ 신중행화 불사하신 분

김은송	오창혁	오현규	권창훈	김유창
강춘희	김선우	김산민	김경희	김민철
김태우	김성우	남창형	남학형	신지원
박대희	정효교	정정교	이정호	이상태
이동학	이호형	최재훈	최윤재	강유미
김상한	김영홍	박상익	여은진	박범수
박소은	박은정	이준민	권오암	배해동
박분남	배수진	이상조	이상석	이진주
이진현	고연숙	김상연	전순옥	삼규암
이승재	신중호	박영승	이지현	문지수
도 연	김수종	최혁준	안명희	신정수
신재호	김현주	신헌태	신현욱	신현중
조현갑	조민규	김윤설	성진경	박경란
성 윤	성 총	김원희	생나경	이상식
이영광	이희동	전숙희	이혜경	이병노
장삼술	전숙환	장재봉	장재혁	임익성
앤디장	권오삼	민기주	권지용	권민중
홍분희	권오국	이상식	이진주	이진현
이원철	김희경	심재찬	김민영	신지원
박남희	송현욱	이상열	이정민	이현우
이성은	이동연	이동하	양영갑	권규정
양혜진	김윤호	양문갑	황춘연	양지영
임재형	백승훈	백수경	이지선	신지원
이지영	박진우	박수진	김광태	천종철
강경구	강성구	방지현	박정순	서나경
서예승	이태건	이승원	법성화	박이자
김수곤	채우희	수 민	최소정	권용재
권우준	권정인	이정희	최민수	장영환
권기욱	권민서	권민교	김기덕	김팔경
정난희	김재백	안명희	김용한	최순영
김규빈	김두현	최지완	유광식	차재민
강호진	박연정	김무성	박경원	차윤길
차삼석	남정오	남유찬	김진숙	문서은
신민경	신유림	강학철	신명재	강대범
강대중	정선규	정재왕	최영봉	김정하
최준호	이정철	이동규	이석규	권택훈
이상관	권준희	권준엽	박정숙	전정광
박은희	전호진	전현진	전상혁	이정아
전유진	이중우	전정아	이예진	이상인

김윤일	김승수	박응호	전태수	박수윤
박수빈	박상아	박근수	김주희	박재완
박은총	김봉조	이정화	김창용	이한결
김현숙	이보형	황인숙	이재창	이재석
박말순	김기봉	박준녕	박유찬	니영옥
김미희	조경원	조경환	김상석	이주영
김창혁	김진혁	김소영	이원석	허정현
김경수	이유태	이영석	김인수	김수라
김보리	김연정	김정달	이수옥	김연섭
김 엽	장청자	김수현	안주선	안중현
안지영	전미진	김수용	송형석	김경남
조춘권	조원일	조민진	조준한	조상혁
김종호	김찬우	박종환	정현석	정원재
박무착심	여보리자	윤건보심	이일심원	해조스님

◎ 3층 만불전 인등불사하신 분

1 ㄱ권병운	2 ㄴ이 씨	3 ㄷ김 씨
4 ㄹ권수형	5 ㄹ류 씨	6 ㄷ김 씨
7 ㄷ권태직	8 ㄷ류경남	9 ㄷ권영옥
10 ㄷ김중교	11 ㄷ권영무	12 ㄷ조보호
13 ㄷ박해건	14 ㄷ권보리	15 ㄷ권기철
16 ㄷ권선오	17 ㄷ김재훈	18 ㄷ정달수
19 ㄷ박경술	20 ㄷ김분근	21 ㄷ이경철
22 ㄷ김경남	23 ㄷ이영수	24 ㄷ진영덕
25 ㄷ피계옥	26 ㄷ김조이	27 ㄷ조철오
28 ㄷ박상화	29 ㄷ채분이	30 ㄷ염태설
31 ㄷ염정희	32 ㄷ최위선	33 ㄷ장해원
34 ㄷ진형수	35 ㄷ이인분	36 ㄷ정태석
37 ㄷ이춘기	38 ㄷ이근수	39 ㄷ이 영
40 ㄷ이용훈	41 ㄷ이봉훈	42 ㄷ김태순
43 ㄷ오문환	44 ㄷ김봉길	45 ㄷ강귀순
46 ㄷ정상화	47 ㄷ이숙자	48 ㄷ우정순
49 ㄷ김시훈	50 ㄷ한종태	51 ㄷ최태희
52 ㄷ김관음행	53 ㄷ이경숙	54 ㄷ황임영
55 ㄷ이무창	56 ㄷ정학도	57 ㄷ전병영
58 ㄷ김상순	59 ㄷ이준호	60 ㄷ윤상흥
61 ㄷ윤병주	62 ㄷ이장교	63 ㄷ윤지원
64 ㄷ장영옥	65 ㄷ윤종목	66 ㄷ우제로
67 ㄷ이하자	68 ㄷ김문성	69 ㄷ박인환

- | | | |
|----------|-----------|----------|
| 70 ㄸ백규성 | 71 ㄸ김점이 | 72 ㄸ임병수 |
| 73 ㄸ최선이 | 74 ㄸ김봉석 | 75 ㄸ이병재 |
| 76 ㄸ박영래 | 77 ㄸ류정일 | 78 ㄸ유순열 |
| 79 ㄸ이예승 | 80 ㄸ박종석 | 81 ㄸ양상모 |
| 82 ㄸ김영철 | 83 ㄸ이태호 | 84 ㄸ정점연 |
| 85 ㄸ이영식 | 86 ㄸ수자령 위 | 87 ㄸ류선희 |
| 88 ㄸ장도연 | 89 ㄸ사공훈 | 90 ㄸ황동섭 |
| 91 ㄸ류택연 | 92 ㄸ황재영 | 93 ㄸ채승호 |
| 94 ㄸ정만달 | 95 ㄸ최규석 | 96 ㄸ김기호 |
| 97 ㄸ정동필 | 98 ㄸ3대 조모 | 99 ㄸ김정태 |
| 100 ㄸ김춘구 | 101 ㄸ오연옥 | 102 ㄸ권사흠 |
| 103 ㄸ정유환 | 104 ㄸ신 씨 | 105 ㄸ이잠백 |
| 106 ㄸ정규동 | 107 ㄸ김귀출 | 108 ㄸ정호기 |
| 109 ㄸ강용팔 | 110 ㄸ김칠순 | 111 ㄸ강연옥 |
| 112 ㄸ공영도 | 113 ㄸ안덕용 | 114 ㄸ박만대 |
| 115 ㄸ김종기 | 116 ㄸ장병철 | 117 ㄸ채중순 |
| 118 ㄸ김태권 | 119 ㄸ박점향 | 120 ㄸ이태악 |

◎ 문수보살 불사하신 분
장원재 김태운 김정운

◎ 보현보살 불사하신 분
성 윤

◎ 단집연 불사하신 분
정신동 김영우

◎ 원불 불사하신 분
3597 권지현 3598 ㄸ황재영

◎ 오백나한 불사하신 분
136 이승민 137 이정호 138 안주선

왕생극락하옵소서

- ◆ ㄸ고세옥 영가의 기제사가 5월 2일에 있었습니다.
 - ◆ ㄸ김기섭 영가의 기제사가 5월 3일에 있었습니다.
 - ◆ ㄸ김 공 영가의 기제사가 5월 5일에 있었습니다.
 - ◆ ㄸ정호기 영가의 막제가 5월 6일에 있었습니다.
 - ◆ ㄸ박순용 영가의 기제사가 5월 8일에 있었습니다.
 - ◆ ㄸ조진근 영가의 막제가 5월 14일에 있었습니다.
 - ◆ ㄸ이춘식 영가의 기제사가 5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 ㄸ함영봉 영가의 기제사가 5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 ㄸ오문환 영가의 기제사가 5월 20일에 있었습니다.
 - ◆ ㄸ박영훈 영가의 기제사가 5월 23일에 있었습니다.
 - ◆ ㄸ황용준 영가의 기제사가 5월 24일에 있었습니다.
 - ◆ ㄸ이순자 영가의 초제가 5월 28일에 있었습니다.
-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해오름마을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상 새겨드림)

문의 종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해오름 요양원 소식



정보공유협의회 참석

노인장기요양보험 대구수성운영센터 5층 회의실에서 장기요양 기관의 정보공유와 소통 강화를 위한 '2018년 상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가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미용 봉사활동

신록이 푸르른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미용 봉사자들이 요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보호자들의 방문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단정하고 깔끔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재능을 기부해 주셨는데요, 봉사자분들의 세심한 손길에 어르신들도 행복하고 만족해하십니다. 보호자분들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더불어봉사단 방문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본 요양원에 더불어봉사단이 방문하였습니다. 카네이션을 만들어 어르신들께 달아 드리고 봉사단이 준비해 온 선물도 전달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골격계교육 실시

본 요양원에서는 5월 9일 서동남 작업치료사와 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교육을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방법을 배우고 직원들의 바른 자세를 익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효율적인 케어의 방법과 자세를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안순정·이경희·손미령·이수정·배영숙(웃음치료), 무하스님(웃음치료), 이정신·신계영(마술공연), 윤수빈·강진주·윤성덕·문자영(이미용), 지은정(미술치료)

| 단체 정기봉사자 | 수성시니어공연단(공연활동), HE봉사단(놀이치료), 써포터즈봉사단(야외나들이), 친한친구봉사단(놀이치료), 행복한교육이야기(놀이치료), 어린왕자봉사단(놀이치료), 그루터기봉사단(놀이치료), 오카리나공연단(공연활동), 하모니카공연단(공연활동), 우쿨렐레공연단(공연활동), 색소폰공연단(공연활동), 더불어봉사단(놀이치료)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4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강병철 1만원	김수곤 5천원	박귀분 1만원
강선옥 5만원	김수라 1만원	박남희 3만원
강소남 5천원	김수자 1만원	박대희 5천원
강영도 2만원	김숙희 1만원	박동규 5천원
고연숙 1만원	김순덕 1만원	박상용 5천원
고재욱 2만원	김순연 5천원	박성숙 5천원
구정대 2만원	김순태(황공주) 1만원	박성용 2만원
권순득 2만원	김양순 1만원	박성은 5천원
권순미 1만원	김영애 1만원	박수진 1만원
권순영 1만원	김영호 1만원	박순남 5천원
권순철 1만원	김옥경 1만원	박순영 5천원
권영철 5천원	김옥희 5천원	박원태 1.5만원
권오관 2만원	김외환 1만원	박원태 1.5만원
권오국 1만원	김용태 1만원	박인철 1만원
권지현 2만원	김우영 1만원	박종규 1만원
권춘자 3만원	김우영 1만원	박종환 1만원
금명섭 5천원	김원형 3만원	박치민 5천원
김건희 1만원	김정규 5천원	박태숙 1만원
김경자 1만원	김정숙 5천원	박희조 5천원
김경호 1만원	김정숙 5천원	반룡사 1만원
김경희 2만원	김정순 3만원	배수현 2만원
김기덕 2만원	김정자 5천원	배하수 1만원
김기수 2만원	김주현 2만원	사공관 2만원
김대현 5천원	김진성 1만원	서동남 2만원
김만기 5천원	남기웅 1만원	서준석(생인재) 1만원
김명숙 1만원	노수정 1만원	서찬수 1만원
김명옥 1만원	도순자 1만원	성기욱 1만원
김미자 1만원	류윤만 1만원	손수연 1만원
김미정 1만원	류훈자(지일) 5천원	송민경 1만원
김미희 1만원	문성섭 1만원	송재욱 1만원
김민주 1만원	박경란 1만원	송정숙 5천원
김봉숙 5천원	박경자 5천원	시명숙 1만원

신구자 5천원	이성건 2만원	정숙자 1만원
신귀화 1만원	이성환 5천원	정숙희 1만원
신통식 1만원	이승환 5천원	정순옥 5천원
신임선 5천원	이옥자 1만원	정순옥 5천원
신충호 5천원	이용욱 1만원	정시영 1만원
신홍준 1만원	이유태 1만원	정옥수 5천원
신화식 1만원	이은유 1만원	정인순 5천원
심규암 5천원	이임숙 2만원	정태교 5천원
심규암 5천원	이재봉 5천원	정혜숙 1만원
안경순 1만원	이전희 5천원	조규인 1만원
안명희 1만원	이정숙 1만원	조성자 5천원
안희선 1만원	이정연 5천원	조영석 1만원
양나영 5천원	이정옥 1만원	조영주 2만원
양봉률 1만원	이정자 1만원	진봉희 1만원
양지영 1만원	이정화 1만원	채옥연 5천원
양혜진 1만원	이정희 3만원	최금부 1만원
양희숙 1만원	이정희 5천원	최분규 1만원
여택동 5천원	이준우 5천원	최영희 1만원
오난옥 5천원	이창수 1만원	최영희 1만원
용마관음사 3만원	이현옥 1만원	최윤희 5천원
우정미 1만원	이호동 5천원	최창숙 5천원
유경희(차목웬) 2만원	임상덕 1만원	한규매 1만원
유명옥 1만원	장민석 1만원	한희록 1만원
윤종수 1만원	장성규 5천원	허유미 5천원
이경자 1만원	장시원 1만원	화반점(백남) 1만원
이남희 1만원	장우성 1만원	흥기학 1만원
이명숙 2만원	장재혁 5천원	홍애분 1만원
이병노 1만원	장찬규 5천원	홍애분 1만원
이병희 1만원	전쌍우(몽매밀) 2만원	황미선 2만원
이복희 1만원	정경석 2만원	황영희 1만원
이상혁 2만원	정경숙 1만원	황학영 1만원
이석규 5만원	정명선 2만원	
이성건 2만원	정민경 1만원	

총합계 : 2,100,000원

무동장으로 후원하신 분

강미경 10,000원 이강복 30,000원
이영주 30,000원 장인숙 5,000원

◎ 이달의 신규 후원 신청자

이윤정 박창모 장인숙

◎ 지출내역

간식비	: 25,000원
식재료비	: 3,500,000원
사무용품	: 147,500원
주유비	: 200,000원
CMS수수료	: 44,000원
금융결제원요금	: 44,000원
SMS수수료	: 500원
케익 구입비	: 70,000원

총지출 : 4,031,00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주시는 분

이월순 어르신 보호자: 사과 2박스, 신발 4켤레

한을식 어르신 보호자: 요구르트 60개

장혜원 어르신 보호자: 빵 15개

해오름 요양원 새가족

해오름요양원 신규 입사자

박창모 시설장, 박정숙 요양보호사,
이윤정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김필남
- 방문접수 법원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해오름 사람들

● 직원 동정

신규 박창모 시설장, 이윤정 간호조무사,
박정숙 요양보호사

복직 이경자 위생원

보직 변경

김필남 간호조무사 ▶ 사회복지사

최영희 위생원 ▶ 요양보호사

퇴사 이상혁 사회복지사

후원업체 소개



하회물류(주)(www.hahoefood.com)에서는 매달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무술년 2018년 소원성취 |

법당 일년등·사업등 동참 받습니다

- 사랑하는 이에게는 애정의 등을
- 돌아가신 분들께는 왕생극락의 등을
- 소외된 이들에게는 관심의 등을
- 병고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쾌유의 등을
- 부모님께는 보답의 등을
- 불교를 모르는 이에게는 감사의 등을
- 고마운 이에게는 감사의 등을
- 수험생에게는 학업성취의 등을
- 착한 이에게는 축복의 등을

- 사업등 - 100만원
- 가족등 - 10만원
- 영가등 - 5만원
- 문 의 : 종무소 766-3747





법왕불교대학

초·중급 및 야간반, 아함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배워 신심과 원력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불교대학 초·중·고급 및 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주지스님 직강으로 사찰예절을 비롯해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를 강의하며, 야간반은 주지스님과 외부 법사를 초빙하여 주요 경전을 강의합니다. 한편 아함경을 30년 동안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초급반 2018년 3월 13일 개강 : 주간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중급반 2018년 3월 20일 개강 : 야간반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수강료는 분기별 3만원(월 1만원)입니다.

개설반	법사	주제	시간
초급반	주지스님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야간반	주지스님	지장경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특강반	외부법사	주요 경전(금강경, 아미타경)	추후 공고
특강반	영일스님	원형불교	모집중
아함반	연담스님	아함경(2년간 연속 강의)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
야간반	관일스님	법구경 특강	저녁 7시 ~ 8시 30분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 화순 운주사·나주 불회사·화순 쌍봉사 |

제35회 백고좌법회 회향 삼사순례 봉행

법왕사에서는 6월 17일 일요일 제35회 백고좌법회를 회향하고 기념 삼사순례 이동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순례법회 대상 사찰은 전남 지역의 고찰들로 화순 운주사, 나주 불회사, 화순 쌍봉사입니다. 이들 고찰은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씩 참배하고 싶은 유서 깊은 곳으로 옛 백제 불교의 향기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시 2018년 6월 17일(일)

참배 화순 운주사 ▶ 나주 불회사 ▶ 화순 쌍봉사

회비 1인 4만원(점심은 사중에서 제공)

출발 당일 오전 8시 법왕사 주차장

문의 법왕사 중무소 053-766-3747



전남 화순 운주사



전남 나주 불회사



전남 화순 쌍봉사

대적광전 신중탱화 모연중

법왕사에서는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삼신불 봉안에 이어 마지막 불사로 신중단 후불탱화를 모연합니다. 법당을 최적의 기도공간으로 장엄하기 위한 마지막 불사인 신중탱화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동참금 : 1인 10만원
- 탱화 하단에 시주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3층 만불전 신중탱화



새롭게 모실 4층 대적광전 신중단